



남원시, 제5기 지사보장계획 추진단 발대식 가져

남원시는 지난 5일 이환주 시장을 비롯해 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와 관련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지역 사회보장계획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 계획은 올 한해 지역사회보장의 각계각층 전문가가 한데 모여 2023~2026년 까지의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을 제시하게 되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새로운 정책제안을 제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남원시가 4번째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단 발대식 이후 TF팀을 구성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재하 희망복지팀장은 "코로나9팬데믹 1인 가구 46%, 외국인노동자의 증가 등 시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제5기 보장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2022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

무주군보건소의료인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들을 위한 비대면 임신부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등록된 70여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실생활에서 우리 아기가 직접 쓰는 물품인 배냇저고리, 애착 인형 아기 신발 등 다양한 용품을 엄마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DIY 키트(직접 만들기 세트)를 임신부 집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임신부 건강교실은 총 3회로 구성되며, 11일부터 12월까지 연속 실시된다. 참여자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오는 8일까지 무주군보건소의료원 지역보건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보건소의료원 이해심 의료지원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임신부들에게 정서 지원을 위해 임신부 건강교실을 운영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임신부 가정의 건강 증진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불안감·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펼쳐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한 지역사회를 출산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임신 초기에 태아 신경관의 정상발달에 필요한 엽산제(3개월)와 출산 시까지 임신부에게 필요한 철분제(5개월)과 비타민D를 임신부 등록 시에 제공한다. 또 임신축하용품으로 신생아용품 3종 세트(유기농의, 속싸개, 신생아용 손볼빨기 세트)와 어린이용 흡착식 실리온 식판, 튜브크림 등을 지원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공취팔외도서관, 도서관 주간 행사 진행

완주군 공취팔외도서관(관수 박성일)이 도서관 주간 행사를 통해 체험, 한국사 교육, 원화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6일 완주군은 오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제58회 도서관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연계도서 책놀이 '책이랑 놀자'를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영화(암살)로 보는 한국사'를 진행해 독립운동의 역사와 영화 속에서 풀어진 상상력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도서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민과 사연을 접수받아 적절한 책을 처방하고, 4형식 짓기 원화전시를 통해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각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8일까지 완주군립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wanji.go.kr)를 통해 4일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완주=이중복기자

방방곡곡 온기나눔 RUN

전북농협·장계농협, 봄맞이 꽃 심기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은 제77회 식목일을 기념해 6일 농협장수군지부(지부장 정영선), 농가주부모임 장수군연합회(회장 임영순)와 함께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광지 주변에 꽃잔디 금잔디 리빙스턴 데이지 등 1,700주의 꽃을 식재했다. 이번 식재행사는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군민들의 왕래가 잦은 대곡리광지에 꽃을 심어,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곽점용 조합장은 함께 참여한 직원 및 농가주부모임 회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쳐있는 군민들에게 오늘 심은 꽃이 활력이 되길 바란다. 꽃처럼 밝고 활기찬 장수군의 이미지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성기자



정재호 본부장은 "바쁜 영농철에도 봄맞이 꽃 심기 행사에 동참해주신 농가주부모임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변함없이 사랑받는 100년 농협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성기자

부안군,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줄포만갯벌 환경교실 운영

부안군은 지난 5일 2060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교육인 '줄포만갯벌 해양환경교실'을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3가지 주제로 이루어진 줄포만갯벌 해양환경교실(이하 해양환경교실)은 환경감수성이 형성되는 미래세대인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부터 환경교육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해양환경 및 생태교육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참가 학교(단체)는 사전 신청서 '줄포만갯벌 생태이야기'(해양보호구역 생태탐방)와 '줄포만갯벌 해양쓰레기 줄기(플로깅)'(실천형 현장체험학습) 그리고 줄자! 탄소발자국!!(탄소중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006년에 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 2010년에 랍사습지로 등록된 줄포만갯벌 현장과 갯벌생태관에서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해양환경교실은 교육 참가학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생태공원에서 운영중인 체험프로그램을 추가할 여연계 진행이 가능하다. 한편 해양환경교실 중 '줄포만갯벌 해양쓰레기 줄기(플로깅)' 프로그램의 '줄기(플로깅)'은 스웨덴어의 줄다(pluck)와 달리기(jogging)의 합성어인 플로깅(plogging)의 우리말 순화어로서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여연계 진행이 가능하다. 한편 해양환경교실 중 '줄포만갯벌 해양쓰레기 줄기(플로깅)' 프로그램의 '줄기(플로깅)'은 스웨덴어의 줄다(pluck)와 달리기(jogging)의 합성어인 플로깅(plogging)의 우리말 순화어로서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시자봉센터, 미안마 유학생들에 따뜻한 마음 전달

미안마 유학생들에게 전주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는 6일 '미안마의 새 봄 프로젝트'으로 아호시장 판매 수익금 등으로 모은 590만1500원을 지역 내 미안마 유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미안마 유학생과 전주권 대학생 연합봉사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구대식 이사장과 강성필 노조위원장 임소형 전주&전북 알뜰맘 회장, 이지훈 (사)아시아 이주여성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달 28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열린 아호시장에서 전주권 대학생들과 미안마 유학생들이 지역기업이 후원한 양말과 밀크티, 쿠키 등을 판매한 수익금 237만1400원과 전주&전북 알뜰맘의 체현 수익금 59만1000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성금 300만원을 모아 마련했다. 특히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매달 급여의 일부를 나눔을 위해 사용하는 '따뜻한 떼기'를 통해 성금을 후원했다. /김윤성 기자



미안마 유학생들에게 전주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는 6일 '미안마의 새 봄 프로젝트'으로 아호시장 판매 수익금 등으로 모은 590만1500원을 지역 내 미안마 유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미안마 유학생과 전주권 대학생 연합봉사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구대식 이사장과 강성필 노조위원장 임소형 전주&전북 알뜰맘 회장, 이지훈 (사)아시아 이주여성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달 28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열린 아호시장에서 전주권 대학생들과 미안마 유학생들이 지역기업이 후원한 양말과 밀크티, 쿠키 등을 판매한 수익금 237만1400원과 전주&전북 알뜰맘의 체현 수익금 59만1000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성금 300만원을 모아 마련했다. 특히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매달 급여의 일부를 나눔을 위해 사용하는 '따뜻한 떼기'를 통해 성금을 후원했다. /김윤성 기자



전북동자생단체연합회, 식목일 모목심기 행사

전주시 전북동 주민센터는 지난 5일 새마을협의회(회장 진우봉), 새마을부녀회(회장 최정미) 등 자생단체와 함께 '식목일 모목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전북동 금성1길 인근 느티나무어린이공원 주변에 철쭉, 남천 등의 모목을 심었다. 새마을협의회 진우봉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국이다. 그래도 봄이 돌아왔으니 주민들에게 기분 좋은 일을 만들어드리고 싶었다"며 "오늘 심은 모목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새마을부녀회 최정미 회장은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심어진 모목들이 자라며 꽃을 피우는 것처럼 주민들 마음에도 꽃이 활짝 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중화산1동 지사협,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동장 유은례)는 6일 관내 홀로 어르신 12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밑반찬 지원 사업은 혼자 생활하는 노인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밑반찬 등 먹거리를 희망하는 수요가 많아 추진하게 됐다. 이날 주민센터 직원들과 봉사자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홀로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배달하며 인부도 확인했다. 밑반찬을 받으신 김OO 할머니는 "노인 혼자 생활하다 보면 음식을 만드는 것조차 귀찮아 식사를 한 끼씩 거를 때가 있는데, 밑반찬을 직접 배달해주니 입맛이 살아나는 것 같다"며 고마워했다. 유은례 중화산동장은 "어르신들이 정성 가득한 밑반찬을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봄에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대전 조민국씨, 위도면 이·미용 재능기부 봉사

위도면 어르신에게 이·미용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펼쳐 60여명에게 컷트, 이발 등을 실시하여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미용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주인공은 대전에 거주하는 조민국씨. 조민국씨는 부모 고향이 보이면 부곡마을이라 부안을 알게 되었다며 이왕 재능기부를 할거면 부안이고 이발소와 미용실이 없는 위도에서 봉사를 하면 그 빛이 더욱 발랄 것 같아 위도를 선정하게 되었다며 위도 자원봉사 자원배경을 밝혔다. 5일부터 9일까지 총 5일간 위도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이번 한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개월씩 분기별로 위도를 방문하여 이·미용 자원봉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하였다. 머리를 깎으신 한 어르신은 "위도에 이발소가 없어 육지로 나가야 했는데 마을로 직접 찾아와서 머리를 깎아주시 무척 감사할 따름이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병관 위도면장은 "위도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모든 분이 행복한 위도를 만들기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남원시,여성농업인 장류제조사 2급 합격 성과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가 여성농업인 10명을 대상으로 총 5회(매주 1회, 금요일) 교육을 진행한 장류제조사 결과 10명 전원 장류제조사 2급을 합격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장류제조사 2급 취득 교육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장류 식품인 5대장(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찹쌀) 등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제조방법을 습득, 분인이 직접 전통 발효장류를 제조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 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장류제조사 2급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60점 이상), 실기 시험(포트폴리오 제출)을 진행하고 개인 발표과정을 통과해야한다. 최정민 농촌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서 숭수수범이 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석대-전력거래소 미래인재 양성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6일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와 업무협약을 체결 산·학·연 교육과정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 된 업무협약식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별도 행사 없이 서면으로 열렸다. 이번 협약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의 기술과 정보·인적자원 등의 교류는 물론 교육부의 IINC 3.0 산학연 협력사업에 동참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전력거래소는 우석대학교의 표준 현장실습과 기관 연계 캡스톤디자인 교과 운영에도 참여할 예정이며, 우석대학교 학생들의 전력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진로·취업 탐색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석대학교는 전력거래소의 에코리빙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 교수와 관련학과 학생들이 함께 PBL(Problem Based Learning)을 통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양 기관은 교육부의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IINC 3.0)과 산업분야 중심 융·복합형 교육과정 확산 및 기관 연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남천현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전력거래소와 같은 국가핵심기관 시설에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다"며 "전력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전력거래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 이사장은 "우석대학교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며, IINC 3.0에서 운영하는 산학연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